

공정위,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시정

출발 91일전 취소수수료 '0원'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7개사 해당
취소불가 조건 70%할인운임 제외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 91일 전
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국제
선 항공권 취소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
으로 취소 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앞으

로 7개사는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한다. 또 출발일 90일 이
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
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구
간 구분 방식과 구간별 취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 운임 항공권
의 취소 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 항공권
의 취소 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틀은 유
지한다. 수수료율은 0.5%(출발일로부터
90~61일 전)부터 29.0%(출발일 10일 전
부터 출발일 당일)까지며, 각 사마다 평
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많
게는 15.9%p 감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측
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7개사가 항공권
취소 시 국제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

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
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국내선의 경우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
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 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
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 운임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항공
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
한 취소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돼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서류가방-숄더백-백팩...너 혹시 '트랜스포머'?

컨슈머블로그

그레고리 '어센드 쓰리웨이'

한 우물만 판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아니, 한 가지만 할 줄 알
아서는 밥 먹기도 힘든 시대다. 이것도
잘 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야구도 축구도 멀티플레이
어가 사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다.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그레고리의 백팩이다. 정식 이름은 '어
센드 쓰리웨이(ASCEND 3-WAY·사
전)'이다.

쓰리웨이라고 해서 세 군데 구멍을
뚫어 놓아 통풍이 잘 되는 가방인가 싶
었다. 왜 백팩이란 것이 좀 쓰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썩 유해하지 않은 땀
새가 배곤 하지 않는가.

솔직히 처음 어센드 쓰리웨이를 봤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군청색 수트
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보범 직장인
들이나 들고 다닐 만한 서류가방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태블릿에 노트북
(또는 블루투스 키보드), 가끔은 무거운
DSLR까지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기
자들에게는 너무 압축한 가방 같았다.

그런데 웬걸, 이래서 선입견은 안 된



다니까. 어센드 쓰리웨이는 가방 뒤쪽
에 두툼한 어깨 벨트를 감싸듯 감춰
놓고 있었다. 이 벨트를 꺼내 연결하고
가방을 세로로 세우니 단정한 세단이
돌연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는 '삼남자'
지프로 돌변해버렸다. 메어보니 확실한
아웃도어 백팩의 느낌이 어깨와 등으로
전혀져 왔다.

그런데 평소 백팩을 애용하는 사람이
라면 다 아는 불편한 점이 하나 있다.
아무리 수납공간에 묘를 더해 봐야 백
팩은 백팩이다. 길을 가다 뭔가 필요하
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백팩을 벗어 내려
놓고 지퍼를 열어야 한다. 긴박한 순간
에 카메라를 꺼낼 시간이 없어 기껏 목
직한 DSLR을 가져가 놓고는 스마트폰
으로 사진을 찍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
은 기사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럴 땐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매는
숄더백이 좋다. 옆구리에 가방을 붙이
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편하게 가방 속
의 물건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숄더백도 단점이 있다. 지나치게 무거
운 물건은 넣고 다니기에 부담스럽다.
대표적인 물건이 노트북이다. 숄더백에
노트북을 넣어 다니는 호기를 부렸다가
한 달도 못돼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생
고생한 기억이 있다.

여하튼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도 되는 날이라면 숄더백이 편하다. 놀
람게도 어센드 쓰리웨이는 숄더백으로
도 변신한다. 백팩용 어깨벨트를 원래
있던 공간에 양전히 넣어두고 대신 스트
랩을 연결하면 된다. 브리프케이스,
백팩, 숄더백, 그래서 쓰리웨이이다. 가방
하나가 세 가지 모드로 적적 변신하니,
이전 마치 트랜스포머같지 않은가!

쓰리웨이를 한 차례씩 경험해 보고는
다시 한번 찬찬히 외관을 살펴보았다.
첫인상과 달리 속을 알고 나니 겉도 은
근히 괜찮아 보인다. 안을 열어보면 알
겠지만 프리미엄 가방답게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다양하다.

어깨 벨트를 꺼내 백팩으로 만들어
메어 보았다. 어깨와 등이 편한 데다 뒤
태도 예뻤다. 아주 좋다. 너 오늘부터
'내 꺼' 하자.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필립스코리아, '다이아몬드클린' 40% 할인

필립스코리아가 프리미엄 음파칫솔 브랜드 소닉케어 다이아몬드클
린의 파격 할인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10월16일까지 전국 현대백화
점 전 지점에서 진행하며 하이엔드급 모델인 다이아몬드클린과 전용
칫솔모(4개)를 43% 할인된 19만9000원에 판매한다.



경제현장.jpg

일일 판매원 히딩크 "네덜란드 대표 상품 팝니다"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축구감독(가운데)이 28일 경기도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네덜란드의 대표 상품을 홍보하는 일일 판매원으로 나섰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9일까지 네덜란드 대표 상품전을 개최한다. 뉴시스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쟁, 이제 시작이다

'갤럭시노트7' 10월1일 판매 재개
LG전자 승부수 'V20' 오늘 출시
'아이폰7' '엑스페리아XZ'도 대기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쟁은 이
제부터가 본격적이다.

삼성전자가 판매를 중단했던 '갤럭시
노트7'의 개통을 28일 재시작한 가운데,
LG전자가 29일 새 전략작 'V20'을
공식 출시한다. 여기에 애플의 '아이폰
7'이 국내 출격을 앞두고 있고, 소니도
프리미엄폰 '엑스페리아XZ'의 국내 출
시를 내달 공식화 할 예정이다.

먼저 시장 선점 전략을 펼치다 압축을
만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10월
1일 판매를 재개한다. 예약판매 고객
의 개통은 28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홈엔
식 등 신기술로 출시 초 순항하던 갤럭시
노트7은 배터리 폭발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삼성전자는 전량 신제품 교환이
라는 발 빠른 대응으로 충격을 최소화했
다. 다만 전례 없는 사고 탓에 향후 재판
매가 어떤 성과를 낼 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V20'은 29일 공식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잇따라 국내 판매를 시작하며 하반기 경쟁에 막을 올렸다. (왼쪽부터)
10월1일 판매를 재개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29일 정식 출시되는 LG전자의 'V20',
내달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애플의 '아이폰7'.

다. 연이은 영업적자 탓에 스마트폰 사
업부문에 빨간불이 켜진 LG전자의 승
부수. 쿼드DAC과 전후면 광각카메라
등 세계 최초 시도가 눈길을 끈다. 운도
따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
7의 시장선점 전략에 차질을 빚었고,
애플의 아이폰7도 아직 출시 전인 상황
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애플에 비해 낮
은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높은 출고기도 변수다.

외산폰들의 공습도 본격화한다. 애플
의 아이폰7은 이르면 내달 중순 경 한

국 시장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공개 당시 '혁신이 없다'는 박한 평가를
들었지만, 막상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 다만 국내 시
장에서 앞서 출시된 갤럭시노트7과 V
20의 시장선점 효과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소니코리아는 엑스페리아XZ를 내달
5일 국내에 공개하며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경쟁에 동참할 예정이
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허리통증 전문의요기기
허리愛

저출력 레이저 아리당중전문 의료기기

1. 허리에 1회 사용시간 40분, 자동제어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1회 사용시간 40분이 자동 세팅되며 하루에 2번 사용을 권장하며 4시간 한련중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저출력 레이저는 안전합니다.
허리에의 저출력 레이저는 허리통증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며 통증은 가라앉고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650nm 파장과 830nm 파장을 방사하며 10만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3. 전국 100여개 동종크리닉에서 사용중...
소모품이 없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허리통증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무선형이어서 버튼만 누르면 오케이!...(허리에 사용하는 허리띠 기본제품)

인체에 무자극 안전한 방법

허리에의 저출력 레이저는 인체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사용중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염이나 상처를 입히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염진통제와 같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통증을 완화시켜 주어 만족스러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저출력레이저는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문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리통증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단 2%수술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
허기번호 제14-842
판매원: 제이메스넷

허리愛는 이런 분께 권합니다.
허리에는 반복적인 통증을 위해 고안된 제품입니다.
기타는 통증이나 일시적인 통증 등은 적절한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등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로상담전화: 1644-2464
입금계좌: 농협351-0651-2246-73 제이메스넷
통신번호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메스넷 E-mail kakao4@naver.com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살을 빼는 것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찌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 찌고 배도 약간 나오는데
것이 웬지 안좋고있고 품위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
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
만하여 성적이 저하되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
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고 호소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고른 영양섭취와 함께 '살찌
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유전적 특성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잘 먹어도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
우는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을 살펴 보면 사
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체중에 속하는 지
마른 체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가 많이 먹
어도 살이 안찌는 체형이라면 자녀에 속하는 사람
도한 유전적인 특이성에 의해 마른 체형일 수 있
으나 유전적인 특이성은 후천적인 식습관 및 생활 습
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가장 큰 내부요인
신경이 예민해서 살이 안찌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텐데 정
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하
지 않고 공급이 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 잘못된 식습관이 마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찌는다고 하는 사람들
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
나 부족하게 먹게되어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채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사만 하는 경우라면 체중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육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어릴 때 아마 편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적
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Salzzio

특별 제10-1314762호 www.sunsea.kr
서울시당지사: 02-522-2710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